

齋門

불기 2568년

겨울호

통권 제170호

齋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모두가 겨울잠을 준비할 때 우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 치문반 혜엄
-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같은 추위를 사르르 녹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옆의 도반이 잡아주는 따스한 손길일 것입니다. / 치문반 도림
- 내리는 고요함 속에서 세상도 나도 잠시 쉬어가는 듯하다. / 사집반 정견
- 만물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 한번 죽는 겨울. 나는 이번 겨울 어떻게 철저히 죽을 것인가. / 사집반 해묵
- 추운만큼 마음은 더 따뜻하게 사용하기 / 사집반 인성
- 겨울바람 불어오는 새벽 하늘의 별들을 보는 행복함 - 운문사의 매력이다. / 사교반 서현
- 옷을 벗으니 바람길이 자유롭구나 / 사교반 혜명
- 지혜는 고요함에서, 깨달음은 뜻하지 않게, 화두는 멀지 않은 곳에서 향시 찾아온다. / 화엄반 해탈향
- 요세개시심了世皆是心 세상이 모두 다 마음인 줄 알아마쳤더니 이불삼은 높은 하늘 매갈한 겨울바람마저 화장세계 부처님 음성이 되네. / 화엄반 선혜
- 불법의 인연으로 운문사의 대중과 함께 보낸 4년의 시간을 밑거름 삼아 지혜롭게 보시하고 정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 화엄반 도솔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현	참 스승과 참 제자 명성
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그녀에게 은장
08	교수논단	「운문구곡가雲門九曲歌」 연구 ② 원범
14	학인논단	「입법계품」의 선지식 삼매에 대한 요약要約 ② 도승
17	想	정진바라밀 승목
18	외부기고	신통이 진짜니? 지승도
22	선배 탐방	출가자로서의 각오 다지기 - 선청 대원사 도형스님을 찾아 뵙고 - 공림
27	풍경소리	보름달 해인
28	수행의 두레박 하나	모든 것은 꿈이니라 덕유
30	차례법문	아름다운 구속 선혜
34	자유기고	수행으로 가는 발걸음 서현
36	운문만행	부처님께 가는 길 경운
40	운문, 운문인	연년시호年年是好年 일일시호日日是好日 편집부
42	수행의 두레박 둘	출가자가 숙고해야 하는 법 10가지 혜남
45	이 한 권의 책	동양고전에서 불교를 보다 -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를 읽고 - 명주
48	운문논평	계율과 포살 편집부
50	운문소식	
51	등불	불전사물佛殿四物 - 운판雲板

참 스승과 참 제자

명성 / 운문사 회주



겨울철이 되면 운문사는 4년의 강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운문사 도량을 떠나는 졸업식이 행해집니다. 이전에 내가 4학년에게 화엄을 가르칠 때 80권 화엄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보느라 공양하는 시간 외에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로 61회 졸업을 맞이하니 졸업한 학인 수도 이천백여 명이나 됩니다. 모두 나보다 훌륭한 스님들이 되어 수행과 포교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살아 계시고 형제간에 아무 변고가 없는 것이 첫째 즐거움이요 [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락야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구부려서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 이락야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二樂也], 천하의 영재를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 [득천하 영재이교육지 삼락야得天下英才而教育之 三樂也] 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즐거웠던 거 같습니다. 나는 1958년 승주 선암사 강원에서 성능 조실스님으로부터 전강傳講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60여 년을 강의를 하였습니다. 1985년 고故 흥륜스님과 지금 울주소임을 보고 있는 일진스님을 비롯하여 전강한 제자가 23명이 되고 현재 운문사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열 분이나 됩니다.

부처님께서 참다운 제자와 참다운 스승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잡아함경』에 보면 참다운 제자란 연기법을 잘 배워서 지혜를 갖춘 이들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차유고피유 차생고피생此有故彼有 此生故彼生].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차무고피무 차멸고피멸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라고 꿰뚫어 아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 연기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연기법을 제대로 알게 하는 이가 곧 스승인 것입니다. 스승의 역할은 바로 부처님의 연기법을 바르게 알게 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알려 주는 스승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하고, 좋은 스승은 설명을 하며, 훌륭한 스승은 모범을 보이고, 위대한 스승은 감화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모범을 잘 보이더라도 진정 감화를 줄 때 최고의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화를 줄 수 있으려면 많은 자질을 갖추어야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덕德입니다. 이는 덕德자를 풀어보면 참된, 진실을 행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있어 진실한(즉사이진 卽事而眞) 것이 바로 덕德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역할은 ‘얼굴에서 눈썹과 같은 존재’라고 종종 이야기 합니다. 이 눈썹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지 곰곰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

그녀에게

은광 / 운문사승가대학 주지

이것은 지난 가을 은행잎과 감나무 색깔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날은 은행나무의 노랑잎이 최절정이었고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주황색 감들이 꽃보다도 아름다웠던 해질녘 가을 오후였다.

초록색 은행잎이 어찌하여 노랑잎이 된 것인지, 뻗질뻗질하던 연두색 감이 무슨 이유로 주황색 감이 된 것인지, 그녀는 이런 현상들을 신기해하는 그런 스타일의 여인이었다.

은행나무의 무수한 잎들이 초록색이었던 시절, 그 앞에는 메론색, 연두색, 청포도색, 잔디색, 풀색, 쭈색, 올리브그린, 대나무색, 에메랄드그린, 수박색 등등 온갖 색들의 변화무쌍한 힘차고 박력 넘치는 서사가 있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다 가을이 오면 '오! 노랑색 은행잎이야.' 라고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그곳에서도 레몬색, 베이지색, 개나리색, 병아리색, 바나나색, 해바라기색, 노른자색, 거자색, 호박색 등등 한마디로 '노랑색' 이라고 입을 크게 벌려 말하기엔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사연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단정적으로 쉽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은행잎을 통해 말하고 싶어했다.

해질녘 저녁늘의 붉은빛들이 화려하고 황홀하고 신비롭게, 무한에 가까운 색들로 하늘에 중첩적으로 포개져 있을 때면 그곳에서 여지없이 발견되는 주홍색, 주황색, 당근색, 감색에 매료되어 '어찌하여 감나무의 홍시 색깔이 저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하늘에 가 닿아 있는 것일까?' 하며 감격해하곤 하였다.

초록은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얻을 수 있다(Blue + Yellow = Green). 주황과 주홍색은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나타난다(Red + Yellow = Sunset Orange). 초록색과

주황색 모두 노랑색이라는 공통분모가 바탕에 감추어져 있는 셈이다. 온 산천의 푸른 숲속 초록잎들과 감나무의 주황에 태양과 희망을 상징하는 노랑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와 화려하고 찬란했던 색들의 향연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천편일률적인 '까망' 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깜깜함. 빛의 부재로 인하여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온통 까만색으로 변했으니 말이다. 무엇이 본래의 색이란 말인가?

그녀와 나는 해가 저물자 진지하게 색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결론은 '실재의 입장에서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색의 세계도 모든 것이 그러하듯 인연화합으로 잠시 그렇게 보일 뿐, 실재로 존재하는(자기의 자성을 가진) 고유 빨강색 파랑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늘은 파랑색이 아닌 것이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색이란 가시광선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시각 작용과 수많은 조건들로 인하여 그렇게 비추어지고 인식될 뿐이다. 좁혀서 논의하더라도 '색이 실재라면 모든 생명체가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색으로 인식하겠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는 보라색이 독수리나 고양이 혹은 올빼미 눈에 보라색으로 지각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고, 다양한 생명체가 경험하고 느끼는 이 시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주이며, 컬러일 것이다.' 등등을 쉬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색의 세계는 정녕 착각이고 착시이며 결국 '환幻(허깨비)' 이고, 아마도 우주의 컬러colour는 '검은색' 이 아니겠느냐?"라며 공감을 기대하면서 그녀를 무심히 바라보았는데 글썽 그녀가 가자미눈을 하고 나를 찌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앗! 나는 그날 밤 공연히 '색의 본질' 운운하여 그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일까? ㄷ

『운문구곡가雲門九曲歌』 연구 ②

원법 / 운문시승가대학 교수

목차

I. 서언

II. 박하담의 [운문구곡가]

1. 입도차제入道次第의 조도시造道詩
2. 물아상득物我相得의 소요逍遙

III. 손기수의 [운문구곡]

1. 음영성정吟詠性情의 산수시
2. 유유悠悠의 청취淸趣

IV. 결어

2. 물아상득物我相得의 소요逍遙

위에서 살펴보았듯 박하담이 구곡을 경영하고 구곡을 유람하며 지은 「운문구곡가」는 주자의 삶과 학문을 추구하는 그의 이념이 표출된 것으로서 운문구곡은 심성을 도야하고 도道에 나아가는 입도차제의 산수 간이었다. 이 시적 이념을 형상화하기 위해 박하담은 시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운자韻字 또한 「무이도가」와 동운同韻을 사용하여 주자를 본받고자 한 자신의 이념을 표현하였다. 이제 심성도야의 이념을 형상화하는 미의식은 어떠한지 들여다보자.

소요의 노닐은 반드시 세상 밖 광막의 고을에 있는 것은 아니니 명교名教 속에도 스스로 즐거운 경지가 있다. … … 나의 소요는 구름에 날고 하늘에 노닐이 아니고 스스로 즐거운 곳에서 자재하는 것이다.¹⁾

소요는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에 나오는 말로 장자가 소요를 세상 밖의 광막한 고을에 둔 것이라면 박하담은 유학의 가르침인 명교名教에도 본디 즐거운 경지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소요는 스스로 즐거운 곳에서 마음대로 자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또 “물과 내가 서로 뜻이 맞아 애오라지 소요하고 거닌다.”²⁾라고 하였다. 그의 미의식이 명교 속에서 대상과 내가 서로 뜻을 얻어 자재하게 소요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여기서 명교는 유학을 일컬으며 이러한 이념을 형상화하여 읊은 것이 바로 「운문구곡가」인 것이다. 이 가운데 몇 곡을 보자.

주자는 「무이도가」 서시序詩에서 ‘신선들의 혼령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박하담은 ‘더욱 신령하다’라고 표현해내고 이 신령함을 1곡의 맑음(淸)으로 형상화하여 시각과 감각적 효과를 동시에 표현해

내었다. 그렇다면 「운문구곡가」 전반에 흐르는 시상 詩想은 신령스러움이겠고 소요하며 자락하는 작자의 정서는 '맑음'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내원에서 주역을 보는 그의 정취를 청량淸涼하다고 표현한 5곡에서도 그 직접적 체험을 드러낸다. 이 맑음은 「운문구곡가」 서시의 '자연청自然淸', 1곡의 '청류淸流', 7곡의 '한寒'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운문구곡가」의 맑음은 어떠한 흥취를 의지하여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四曲環溪四面巖 4곡이라 시내가 사방의 바위 둘러 있고
 瑤花異草影斜斜 어여쁜 꽃 기이한 풀 그림자 길고 기네.
 天門洞壑多奇絕 천문동 골짜기엔 절경이 많은데
 石氣摩雲月印潭 돌 기운은 구름을 만지고 달은 못에 찍히네.

각 곡에는 운문이라는 경치에 부합되는 경물인 구름과 안개, 크고 작은 바위나 돌, 물과 새 등 자연의 경물이 포진해 있다. 달 또한 어김없이 등장하는 소재이다. 구름이 모이는 곳에는 늘 비를 머금고 있어 대지를 풍요롭게 해준다. 박하담이 비록 과거에 낙방하여 소요당을 짓고 은거하고 있으나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 속에서 심성을 기르고 있음을 우의 寓意하고 있다. 이 시는 여타의 곡과 다르게 모두 서경만을 읊고 있으나 흥취가 한가로움閑이며 청량한淸 흥興임을 알게 하는 묘미를 느끼게 한다. '돌 기운은 구름을 만지고(摩) 달은 못에 찍히네(印)' 라고 하는 사물의 형상화가 그것이다. 도학자이면서 시인이 가지는 표현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런데 7곡은 「무이도가」의 7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6곡에서 한가로움의 경지에 오른 작자는 보이는 절간으로 인해 양성이라는 성리학적 사유에서 잠시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린다. 7곡은 운문의 산수 간을 시화로 삼고 있다.

七曲登臨下白灘 7곡이라 올라보니 아래로 백탄이고
 巖繞梵宇隔林看 우뚝 솟은 절간이 숲 너머에 보이네.
 披雲巨手今安在 구름 헤친 큰 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秋月精神水面寒 가을 달의 정신은 수면처럼 차가워라.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운문산을 유람하며 운문사와 관련한 많은 시작품을 남겼는데 박하담 또한 운문산을 유람하며 운문사를 둘러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남긴 「운동잡영雲洞雜詠」, 「운문부雲門賦」 등은 운문사를 비롯한 운문산의 경치를 묘사하였다.

박하담의 위 7곡은 조선의 선비들이 때로는 무이구곡을 상상하면서 차운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박하담은 운문산의 지형을 무이산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았으며 도가적인 무이산의 색채를 그대로 끌어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불교적인 요소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비록 사상적으로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듯하나 거수巨手로 표현하고 있는 어휘들에서 단순한 모방작품이 아니라 때로는 이념을 품기도, 때로는 조선의 산천인 운문의 명승을 읊고 있어 산천에 깃든 정신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도 확인하게 된다. 이는 2곡에

1) 「逍遙堂逸稿」권1 「逍遙堂記」 「逍遙之遊 未必在物外廣漠之鄉 而名教內自有樂地 …… 余之逍遙 非雲飛天遊而自在於自樂之地」
 2) 「逍遙堂逸稿」권1 「山行賦」 「物與我而相得兮 聊逍遙而徜徉」

서의 주자가 설정한 '옥녀봉'을 '석고봉'으로 운문의 지명을 들어 그 주제의식을 담아낸 것에서도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산천이 다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八曲雲林合復開 8곡이라 운림이 닫혔다 열리니
 道人峰下小溪澗 도인봉 아래 작은 시내 흐르네.
 此閑佳景人知少 이 한가한 아름다운 경치를 아는 이 적으니
 ○○○翁伴詠來 늙은이 짝하여 읊조리며 오네.

8곡은 한가롭게 좋은 경치를 더불어 논할 벗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작자의 마음을 읊었다. 도인봉이 상징하는 것은 물리를 터득한 자신의 한가로움이다. 6곡에서 작자는 이미 석만을 바라보며 잔나비 소리, 꽃피는 소리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산수 자연의 걸림 없는 삶을 통해 생생生生하는 천지 자연의 도를 알았다고 하였다. 이때 그의 흥취는 한閑이었다. 이 한가로움은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여 이루어진 흥취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한가로움에서 얻어지는 아름다운 경치는 5곡에서 보여주는 청량淸涼과 명명明明의 탈속적인 모습이다. 또 이 한閑의 흥취를 도인봉에서 나눌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였고, 이 도인이 사는 곳은 앞으로 유람할 9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8곡의 '차한가경인지소 此閑佳景人知少'가 표현해내고 있는 것은 한가로움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데서 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치를 통해 생생의 이치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양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지에서 느끼는 미의식이자 수양의 결정체가 분명하다.

九曲山窮水鑿然 9곡이라 산이 다하는데 물이 맑으니
 游鱗潏潏躍平川 노는 고기 활발하게 평천을 뛰어오른다.
 漁舟此日桃源覓 고깃배 이날에 도원을 찾으니

別有雲門一洞天 달리 운문에 한 동천이 있네.

운문은 구름 문이라 일컬어질 만큼 구름이 많은 곳이기엔 운무가 가득한 날이면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깊은 골이기도 하다. 그 깊은 골을 찾아든 박하담은 이미 물욕과 기심을 잊은 도인의 모습이다. 9곡은 앞의 한가롭고 맑은 세계가 곧 도원으로 귀결된 것이며 맑은 자연에서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평천을 뛰어오르는 것은 연비이약鳶飛魚躍하는 천연天然의 도道を 명징하게 보여준 것이다. 운문의 별유천은 평천을 활발하게 뛰어오르는 물고기들을 통해서 도학적 공간임을 드러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박하담에 있어 산수 자연은 심성도야의 장소이며 작품 전체의 정서는 한가로움과 맑음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는 산림을 유람하며 일어나는 흥을 노래하였는데 여기에서의 흥은 도를 닦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도학의 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명교名教에서 만물과 내가 서로 뜻을 얻는 물아상득物我相得의 그러한 경지이다. 이 물아상득에서 생생의 이치를 터득한 산수 유람이 곧 박하담이 추구하는 소요逍遙이다. 이렇게 박하담의 운문구곡은 곡이 깊어질수록 도학의 경지 또한 깊어지고 있어 서경을 통한 관도觀道와 양성養性의 물아상득物我相得,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한가로움 소요를 형상화하였음을 알게 한다.

III. 손기수의 「운문구곡」

손기수의 작품은 주자의 「무이도가」의 형식을 빌려 왔으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다. 즉 서시에 해당하는 시도 없으며 동운同韻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손기수는 각 곡에 제목을 붙여 놓고

있는데 「무이도가」의 제목과 같지 않은 등 그 내용이나 형식이 주자의 그것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³⁾ 손기수는 어떠한 주제의식으로 「운문구곡」을 지었는지 들여다보자.

1. 음영성정의 산수시

먼저 1곡에서는 그가 구곡을 유람하는 이유가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一曲青山走作龍 1곡이라, 청산이 내달리며 용이 되어
 回頭飲水水雲濃 고개 돌려 물 마시니 물 구름이 짙게 서리네.
 次第名區觀盡意 차례차례 이름난 곳 다 보려 하는데
 我行先自此間從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리.

1곡에서 작자는 이름난 명승지를 유람하고자 하는 유희적 동기를 드러내었다. 제3구의 '명승지를 차례차례 다 보려고[次第名區觀盡意]' 하는 것이 유람의 동기이다. 용 모양의 산세와 용이 뱉어 놓았다는 구름 낀 용담에서 유람을 시작하는 것은 뛰어난 서경을 다 돌아보겠다는 활기차고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이 1곡에서는 이 시가 인물기흥의 성정을 읊은 시임을 알 수 있게 한다.

二曲移行強問羊 2곡이라, 걸음을 옮겨 굳이 양바위를 물으니
 崖懸峽束路蒼茫 깎아지른 절벽 좁디좁아 길 아득하네.
 更拭昏眸開坐久 침침한 눈 비비고 한가로이 오래 앉았더니
 雙巖危立水聲長 두 개 바위 우뚝 서 있는데 물소리 길기도 하네.

손기수는 양바위를 보려고 절벽에 난 좁은 길을 보고는 아득함을 느낀다. 작자는 이미 운문구곡의 경관을 유람하기 전에 익히 알고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의 구곡에 제목을 붙여 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2곡에서는 무이도가와 달리 여색을 멀리한다거나 물욕을 벗어나야 한다는 등의 모티브는 없다. 작자는 2곡에서 좁고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양바위를 찾아가는 자신의 모습과 느끼는 한가롭게 앉아 있는 모습을 우뚝 선 바위[危立]와 넉넉한 물소리[聲長]로 표현해 놓고 있다.

三曲臨淵不見鷓 3곡이라, 연못에 이르러도 닭은 보이지 않고
 波風浪雨但淒淒 풍랑에 비바람만 쓸쓸하네.
 古人名物緣何意 옛사람이 명물이라 한 것 무슨 뜻인가?
 欲聽其鳴竟處迷 그 소리 듣고자 하면 찾는 곳에서 미혹해지리.

3곡은 닭 연못[鷓淵]으로 작자는 닭의 형상을 한 연못이라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정작 마주하고 보니 기대가 컸던지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그의 심경을 처처淒淒라고 표현해 놓았다. 이렇게 쓸쓸한 이유가 다음 구에서 더욱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명물名物이라는 것은 허명虛名일 뿐이기 때문이란단다. 작자는 찾으려고 하면 도리어 어긋나 버린다는 도리를 알고 있다. 제4구에서 손기수는 미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찾는 곳'이라는 것은 인위가 개입된 것이며 이미 기존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

3) 제1곡 용담龍潭, 제2곡 양암羊巖, 제3곡 계연鷓淵, 제4곡 부연鳧淵, 제5곡 주암舟巖, 제6곡 약아계若耶溪, 제7곡 불암佛巖, 제8곡 독목교獨木橋, 제9곡 천문동天門洞이다.

주자의 무이구곡은 제1곡 승진동升眞洞, 제2곡 옥녀봉玉女峯, 제3곡 선기암仙機岩, 제4곡 금계동金雞洞, 제5곡 무이정사武夷精舍, 제6곡 선장봉仙掌峯, 제7곡 석당사石唐寺, 제8곡 고무암鼓樓岩(제9곡 신촌시新村市)이다.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천연天然, 혹은 자연自然스러움에서 떨어진 상태가 미혹이다. 이 곡에서는 사물을 보고 일어난 감회를 읊은 시의 전형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곡이 쓸쓸한 감회를 읊었다면 4곡에서는 한가로움의 정취와 작자의 지향하는 바를 우의寓意하였다.

四曲閒遠泛泛鳧 4곡이라, 한가롭게 물결 따라 떠다니는 오리
鏡中清水浴歡娛 거울 속의 맑은 물 마셔보니 좋아라.
忽看人到雙飛去 사람이 오는 것 알아차리고 푸드덕 날아오르니
烟水茫茫向五湖 물안개 아득한데 오호 향해 가는구나.

제4곡은 부연鳧淵이다. 푸드덕 날아오르는 오리들이 오호를 향해 간다고 한다. 오호五湖는 범려가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킨 뒤 조각배를 타고 숨었다는 은둔처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손기수는 한가하게 노닐던 오리가 인적 소리에 놀라 오호를 향해 간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자신의 한가로움과 즐거움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인간사와는 거리를 두고 더 깊은 은둔처로 나아가고자 한 작자의 심경을 이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가롭게 떠다니는 오리들에서 그의 정취가 '한가로움'임을 보여주었고 그 한의 정서를 바탕으로 그가 보는 세계는 거울처럼 흰히 비치는 맑음[淸]이다. 물이 맑아서 마셔보는 손기수의 흥은 환희로움으로 여기에는 어떤 이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五曲從容訪石舟 5곡이라, 무심하게 배 바위 찾았더니
一生橫臥水長洲 일생을 긴 시내 모래톱에 가로누워 있구나.
漁郎釣罷斜陽外 어부가 낚시 거두자 석양이 기우는데
欸乃聲中晚興悠 노 젓는 소리에 저녁 흥취 한가롭네.

오곡은 배 바위[舟巖]로 편안하고 태연하게 석주石舟를 찾고 보니 이미 석양이 기우는 저녁녘이다. 비긴 햇살에 어부가 낚시대를 거두는 모습과 노젓는 소리는 더욱 작자의 흥취를 한가롭게 한다. 이처럼 작자는 각 구비를 유람하며 한가로움 흥취에 취해 있음을 볼 수 있다.

六曲逶迤上若耶 6곡이라, 구불구불 약야계 올라가니
澄流正色本無瑕 맑게 흐르는 순정한 빛, 본래 티끌이 없구나.
欣然一洗塵間累 기쁘게 한번 세속의 허물 씻었더니
活潑潑潑浪作花 활발하게 반짝이는 맑은 물결 꽃잎을 짓네

6곡은 약야계若耶溪이다. 약야계는 현재 운문사를 뒤편을 흐르고 있는 계곡이다. 작자는 약야계의 맑은 물에 자신의 허물을 씻고 나니 활발활한 맑은 물결은 꽃잎처럼 보인다고 표현하였다. 그의 정신세계가 점점 맑아지고 있으며 2곡의 어두침침한 눈빛에서 기운이 활발하게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七曲回看石面危 7곡이라, 돌아보니 아스라한 돌 바위
天然活佛住長時 천연한 살아 있는 부처 오랜 세월 계시네
坦坦平平吾道外 탄탄하고 평평한 우리의 도 외에
胡爲空作異端歧 어찌하여 공연히 이단의 갈래 만들었나.

손기수는 운문산과 운문사, 그리고 산내 암자와 관련한 시들을 적지 않게 지었는데 승려와 교유를 위해 운문사에서 기숙하거나 법을 듣는⁴⁾ 등 불교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작자는 구곡을 유람하다가 7곡에서 높다란 바위 면에 새겨진 살아 있는 부처를 만난다. 그 부처는 천연스러운 살아 있는 부처[天然活佛]로 표현되고 있다. 천연은 도가와 불가, 그리고 유가에서 일반적으로 도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 용어이다. 손기수는 뒤이어 '탄탄하고 평

평한 우리의 도' 라고 하며 유자로서 자신의 도학이 탄탄하고 평평하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도학 외에 부질없이 이단을 만들었다고 질타하고 있어 자신의 학문적 근원은 도학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천연과 활불活佛을 탄탄과 평평의 오도 吾道로 대비하며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작자의 사상을 볼 수 있다.

八曲持心橫步橋 8곡이라, 마음 다잡고 조심스레 다리 밟으니
 溪南山色碧相邀 시내 남쪽 산빛이 푸른색으로 맞이하네.
 仙鄉咫尺從何到 자척에 있는 신선 마을은 어디로 가야 하나
 要路如今木一條 중요한 길목은 지금까지 나무 한가지로 남아 있네.

8곡에서 신선이 사는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로 독목교獨木橋를 설정하였다. 조심스럽게 다리를 걸었다는 것은 선계로 들어가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척인 선계를 어떻게 갈지 난감한데 다리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독목교는 속계와 선계를 구분 짓는 경계이자 동시에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九曲將窮開河門 9곡이라, 넓은 마을 어귀 끝까지 가보니
 此間知是別傳乾坤 이곳이 별천지임을 알겠구나.
 向來經歷低回首 예전에 지났던 곳 고개 숙여 바라보니
 萬壑烟晴意豁軒 온 골짜기 안개 개고 생각이 확 트이네.

마지막 9곡은 천문동天門洞이다. 주자는 「무이도가」 7곡에서 '은병 선장을 몇 번이나 돌아보았던가?' 라고 회간回看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지나온 풍경을 다시금 조망해 본다는 의미와 더불어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한 것을 되새겨 보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한다.

손기수 또한 마지막 곡에서 회수回首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별천지를 발견해 내고 지나온 곳을 고개 숙여 둘러보았다고 하였다. 이는 지나온 풍광을 되돌아본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 자신의 공부에 대한 반추이기도 하겠다. 이어 구곡을 경영하며 구곡을 유람하는 자신의 현 상태를 '안개가 개고 생각이 활달하다' 라는 표현으로 학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무명에 가려진 자신이 드디어 무명을 벗어던지고 생각이 확 트인 경지를 맛보았음을 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천문동을 읊은 시에서 '신선 사는 곳 어디에 있는가? 지팡이 짚고 찾아보려 하네. [仙源何處在一杖試幽尋]' 라고 읊고 있어 신선이 사는 곳으로 천문동을 상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천문동에 이르니 유유하게 만물 밖에 노니는 마음'⁴⁾이라고 읊고 있다. 이를 통해 '별천지'는 학문적 성취를 뜻한다기보다는 산수의 경관에서 느끼는 걸림 없는 활달한 물외한人物外閑의 마음을 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손기수의 작품은 산수 간을 보고 일어난 흥을 시로 형상화한 음영성정을 읊은 산수시로 이때의 산수 간은 조선의 운문산 자연 그대로 이해하고 그려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4) 孫紀秀, 「天門洞」, 『雲浦世稿』, 『雲門寺誌』, 398쪽 『轉到天門洞 悠悠物外心』

「입법계품」의 선지식 삼매에 대한 요약要約 2

도솔 / 대교과(4학년)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도표로 보는 「입법계품」 선지식들의 삼매 요약
- III. 나오며

전 회에 이어 이번 회에서는 지면紙面 관계상 보살계위에 맞추어 선지식의 이름만 거론하는 것으로 활약하고, 끝으로 등각보살의 도표와 결론으로 논고를 정리하고자 한다.

□ 십회향十廻向 선지식 10명

- 21. 육향장자嚩香長者 22.바시라선사婆施羅船師
- 23.무상승장자無上勝長者 24.사자빈신비구니師子頻伸比丘尼
- 25.바수밀다녀婆須蜜多女 26.비슬지라거사毘瑟祇羅居士
- 27.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28.정취보살正聚菩薩
- 29.대천신大天神 30.안주토지신安住土地神

□ 십지十地 선지식 10명

- 31.바산바연저주야신婆珊婆演底主夜神 32.보덕

- 정광주야신普德淨光主夜神 33.희목관찰주야신喜目觀察主夜神
- 34.보구중생묘덕주야신普救衆生妙德主夜神
- 35.적정음해주야신寂靜音海主夜神 36.수호일체성주야신守護一切城主夜神
- 37.개부일체수화주야신開敷一切樹華主夜神
- 38.대원정진력생주야신大願精進力生主夜神
- 39.묘덕원만주야신妙德圓滿主夜神
- 40.석녀구바녀釋女瞿波女

□ 등각等覺 선지식 10명

- 41.마야부인摩耶夫人 42.천주광동녀天主光童女
- 43.변우동자사邇友童子師 44.선지중에동자善知衆藝童子
- 45.현승우바이賢勝優婆夷 46.견고해탈장자堅固解脫長者
- 47.묘월장자妙月長者 48.무승군장자無勝軍長者
- 49.적정바라문寂靜婆羅門 50.덕생동자유덕동녀德生童子有德童女

선지식 善知識	주처 住處	◎삼매三昧와 ○해탈법문解脫法門	수행 계위 — 바라일	요약과 *나의 입지
51. 미륵 보살 彌勒 菩薩	해안국 대장엄동 산	○입삼세일체경계 불망념지 장엄장해탈문 入三世一切境界 不忘念智 莊嚴藏解脫門 —삼세의 일체 경계 가운데 들어가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장엄 해탈문	불과문 佛果門 묘각 妙覺	<p>해안국 대장엄 동산 가운데 비로자나장엄장 큰 누각 앞 에 엮드려 절하고 안에 미륵보살이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 하고 찬탄한다. 하지만 보살은 다른 먼 곳에서부터 나타 났다. ‘장엄스럽던 모든 일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모두 다 온 곳으로 돌아갔느니라/온 곳이 어디입니까/보살 지혜의 신통한 힘으로부터 와서 머물지만 온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고 머문 곳도 없고 항상한 곳도 없나니라/ 이 모든 일이 제불의 위신력일 따름이니라’ 이와 같이 미륵보살은 과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몽환의 인연 을 따라 존재함으로 삼매 속에서 보았던 모든 법문이 삼매에서 나온 후 찰나 사이에 몽환처럼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미륵보살의 몽환 법문을 통하여 법계 실상이 모 두 그러함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p> <p>*노력에 따라 무량겁을 절약하여 한 생애 칠통타파 한 다고 하니 일생에 불도를 성취하겠다는 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불방일不放逸의 자세로 정진하자.</p>
보살 菩薩				
52. 문수 보살 文殊 菩薩	보문국 소마 나성	오른손을 펴서 일백일십 성을 지나 선재에게 마정수기	불과문 佛果門 묘각 妙覺	<p>일백일십 성을 지나 보문국의 ‘기쁨’을 상징하는 ‘소 마나성’에 이르러 문수사리를 친견하길 희망한다. 이 때 문수가 오른손을 뻗어 백십 유순을 지나 선재의 정 수리를 만지며 마정수기를 한다. ‘밀음의 뿌리인 신근 信根을 여의었다라면 공덕행을 갖추지 못하고 한 가지 선근에 만족하여 대승의 큰 행과 원을 일으키지 못하 였을 것이다.’ 이후 보현의 도량에 들어가서 이미 체 의 본신으로 돌아간 문수사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다. 문수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p> <p>*대지혜의 머무름이 없는 머무름에 돌아간 것이니 삼 성원융三聖圓融이 모두 하나의 썩지 않는 믿음의 뿌리 에서 시작된 것이다.</p>
보살 菩薩				
53. 보현 보살 普賢 菩薩	금강장 보리 도량	○ 법계평등경지관찰보현 해탈 法界平等境地觀察普賢 解脫 —법계의 평등한 경지에서 보현을 관찰하는 해탈문	불과문 佛果門 묘각 妙覺	<p>선재가 금강장 보리도량에서 비로자나여래의 사자좌 임에 있는 보배연화장 자리에 앉아서 보현보살의 경계 를 보고 여래회중에서 보현보살을 친견하고 또 마정수 기를 받는다. 첫 번째 미륵보살의 마정수기는 자비를 뜻하고, 두 번째 문수보살의 마정수기는 지혜를 뜻하 고, 세 번째 보현보살의 마정수기는 행원을 뜻한다. 보 현보살에게 마정수기를 얻을 때 모든 미진수 세계의 삼매를 얻었고 미진수 청정한 세계 속에 태어난다. 보 현보살의 한 털구멍 속에서 삼천대천세계의 낮과 밤과 달과 시간과 해와 겁의 무량한 부처님의 성주과공을 분명하게 보며 끝을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세계 속에 서 선재는 이미 부처님과 동등한 대자대비와 해탈 경 계의 자재함에서 비로소 평등해진다.</p>

보살 품薩			<p>* 나의 보현보살을 닮은 거룩한 행과 그지없이 훌륭한 복을 모두 회향하여 진정으로 삼계 고해에서 해매는 일체 중생들이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바랍니다.</p> <p>-선재처럼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p>

III. 나오며

이상으로 묘각妙覺 선지식 3명의 도표를 끝으로 선지식의 해탈 범문과 그에 대한 느낌을 살펴보았다. 미륵도 감탄하여 선재를 칭찬하였듯 일백일십 분의 선지식을 만나면서 먼저 선지식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지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깊은 마음으로 애락하고, 참회하고, 억념하고, 실천하고, 가장 지극히 존경심을 내는 일로 수행을 삼아 잠깐도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은 선재는 항상 정념正念에 머무르며 산란함이 없다. 일체 유위법을 싫어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이유가 분명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중생을 제도할 것을 맹세한다. 이와 같이 깨닫고자 하는 목적이 확고하고 의도가 분명하므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또한 명확하다.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신심信心의 뿌리가 돈독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전체적 과정이다. 집착이 없고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는 모습에서 대승 구도자의 당당함과, 배운 법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항상 억념憶念하는 모습에서 공부인의 자세를 배운다. 선재의 길을 따라가며 심주, 심행, 심회향, 심지, 등각, 묘각에 해오解悟로나마 함께 동참하여 올라 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함께한 반스님들과 강사스님께 감사드린다. 「입법계품」의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온오히려 들어 있는 「보

현행원품」은 53선지식의 압축본으로 이것으로 신심을 다잡고 견고하게 지켜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중생을 향한 마음이 평등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할 수 있고, 원만한 자비심으로써 평등하게 중생을 향하여 수순해 줄 수 있고, 또 수순으로써 부처님께 진정한 공양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가장 훌륭한 구경정각을 이룰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 있으므로 마침내 궁극의 구경정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중생회향은 다함이 없으리니 몸과 말과 뜻으로 지치거나 싫어함 없이 이 길을 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무비, 2021, 민족사 『화엄경』
- 자훈, 2016, 사유수, 『그림으로 이해하는 화엄경 80 번상도 이야기』
- 용학, 2022, 맑은소리 맑은나라,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지남도』
- 해주, 1998, 민족사, 『화엄의세계』

精進波羅蜜

정진바라밀

승목 / 사미니과 (1학년)



신통이 진짜니?

지승도

■ 신통이 진짜 가능하니?

관념의 세계에서 깨어나 진실을 목도한 주인공 레오는 마침내 신통을 발휘한다. 악역 주인공 스미스요원의 몸을 통과하고, 시간을 멈추는 등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다. 영화 <매트릭스> 얘기다. 하늘로 박차고 날아오르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엔딩 씬의 한 대목이다.

“우리 모두 세상이 나아지길 바라지. 하지만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네. 전에 본 세상은 규율과 통제의 극단뿐이었지. 이제 나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네. 경계도 없고, 국경도 없고, 무엇이든 가능하네. 늘 희망과 평화가 함께 하지. 안타깝지만, 알려 줄 방법은 없네. 그저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스스로 알 것이네.”

영화 <루시>에서도 신통력이 등장한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각성약물을 과다 복용한 주인공 루시의 뇌는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며 신체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조종하는 신통을 발휘한다. 영화 속 대사 몇 마디 소개한다.

“각 세포는 서로를 알고 소통해요. 세포들이 모여 거대한 통신망을 형성해 물질을 구성하죠. 세포들이 모여서 형태를 만들거나 해체 또는 변형돼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모르기에 개발하지 못해요. 천억 개 신경세포 중 고작 15%도 활용하지 못하죠. 세포의 연결망은 은하계의 별보다 많지만, 엄청난 능력의 정보망에 거의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죠. 만약 뇌 용량의 20% 이상 쓸 수 있다면 뇌가 열려서 계속 확장돼요. 스스로 뇌를 정복하는 거죠.



지승도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및 인공지능학과 교수로 30년 넘게 재직. 현재 명예교수 및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불교논리학 기반의 붓다시 연구 및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표적 불교 관련 저서에는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가 있다.

그러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욕망마저 소멸됩니다. 모든 지혜가 머릿속에서 폭발하는 거죠.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영화 속 상상만이 아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어떤 수행자는 담벼락을 통과하기도 하고, 수많은 전생을 꿰뚫어 보기도 한단다.



변신술을 선보이는 루시



히말라야 설산의 똘모 수행자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신통이라? 그저 귀신 셋나락 까먹는 소리 아닐까? 아니다. 누구나 가능하다. 열쇠는 마음이다. 마음만 통제할 수 있다면, 몸도 통제할 수 있다. 마음과 몸이 통제되면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리모델링 될 수 있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 얽매어 신통을 잊었을 뿐 누구나 본래의 모습만 회복한다면 신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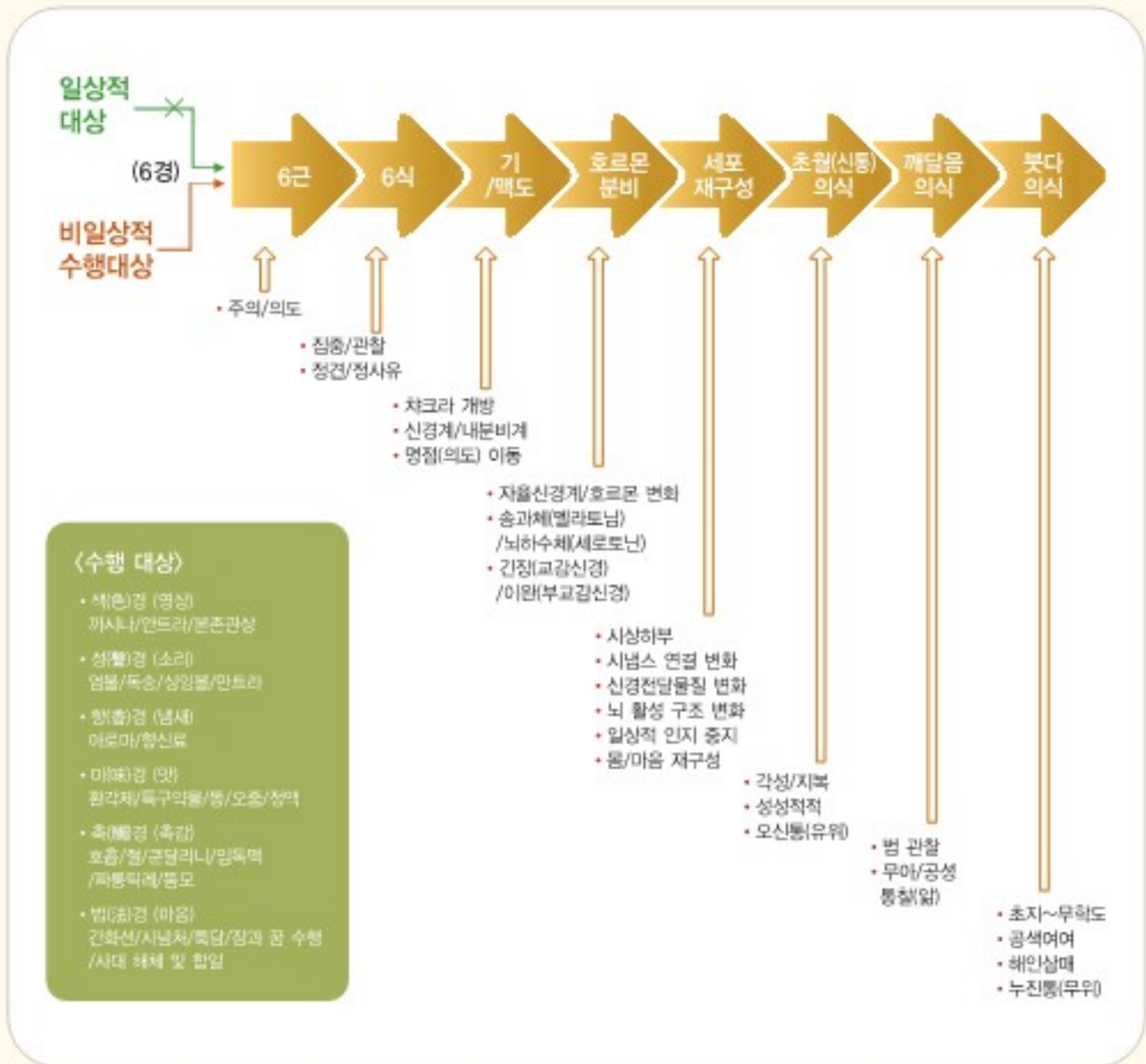
지관수행이면 된다. 먼저 지행 즉 사마타 4선에 이르는 삼매를 닦은 뒤, 다음으로 관행 즉 위빠사나로 이행하면 누구나 신통을 발휘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감각 대상으로부터 육신통에 이르는 과정을 뇌인지과학 및 신경생리학적 관점으로 조망한다. 먼저 초기경전 『디가니까야』의 일부를 소개한다.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합니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 냅니다.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통 변화로 마음을 향합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합니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

기를 물속에서처럼 합니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합니다. 가부좌를 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합니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 자재함을 받습니다.”

■ 신통 수행 과정



신통 수행 과정 뇌인지과학 및 신경생리학적 관점

■ 결론

신통을 얻기 위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흔히 신통이 생기면 세상이 지·수·화·풍·공·식 6대 원소의 극미한 수준까지 보인다고도 하고, 일체가 투명한 빛으로 보인다고도 하고, 찬란한 오로라빛으로 보인다고도 하고, 때로는 가는 오색의 빛나는 실가닥 뭉침으로 보이기도

한다는데 과연 진짜일까?우문에 현답한다. 무지개 빛같은 몇 개일까? 일곱 개일까? 다섯 개일까? 슈뢰딩거의 실험 상자 속 고양이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신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정답이야 누워서 떡 먹기 아닐까? 아니다! 오직 희론의 세계, 개념의 세계를 벗어나야만 정답, 즉 진실과 마주한다. 누진통만이 신통 너머의 신통! 개념 너머의 진실이다.



숙명통, 천인통 그리고 마침내 누진통을 완성하는 뜻다

초고속 비행체, 우주선, 블록체인, AI 시대다.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알고 볼 수 있다. 적절한 약을 복용하면 심리 현상마저 제어할 수 있다. 인간 뇌세포와 반도체 칩을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쯤되면 굳이 신통이 필요할까 싶다. 하지만 제어무리 첨단 과학 시대를 달린다해도 개념 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여전히 꿈속 잠꼬대다. 꿈에서 깨는 유일한 방법은 누진통 뿐이다.

깨달음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신통처럼 의도를 내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도된 마음으로 대상에 집중하는 선정 수행보다는, 의도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이 중요하다. 수행 차제는 첫째 오신통 개발 (심해탈) 후 공성 통찰 (혜해탈), 둘째 공성 통찰 후 오신통 개발 등 두 방법이 있다. 어느 경우건 수행의 종착역은 번뇌장은 물론 소지장까지 없앤 누진통이다. 전자의 경우는 아트만적 안주의 위험성이 따른다. 세속법의 정점에 위치한 더없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 진리를 찾아 또다시 나서야 할 동기를 부여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삼매는 수단에 그쳐야 한다. 목적이 되는 순간 진리와는 멀어진다. 스승의 지도가 꼭 필요한 이유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스승의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스스로 드러난 지혜가 스승이 되어, 스스로 이끌며 완성의 단계로 나아간다. 보증된 길이다. 공성 통찰이란 수행자가 성자의 관문을 통과했다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어무리 오신통에 뛰어나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할 뛰어난 재주 몇 개 장착한 것에 불과하다. 우주를 왕래하는 AI 시대에 그런 능력은 하찮아 보인다. 그러나 오신통 등 마음의 이치를 체득한 성자는 한 명의 완성된 인간인 것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슈퍼맨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참된 인간인 것이다. ☸



출가자로서의 각오 다지기

- 산청 대원사 도행스님을 찾아 뵙고 -

공림 / 사교과(3학년)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지리산 동쪽 기슭에서 난생 처음으로 결재철에 대중선방을 방문하게 되었다. 도착해보니 겨울의 초입이라 그런지 진눈



깨비가 흩날리는 날씨에 고요하고 단정한 사찰의 모습이 어쩐지 수좌스님들의 좌선 수행을 여실하게 드러내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착하자마자 길을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 마중나와주신 선배스님을 따라 공양간으로 안내받아 가보니 이 외지고도 깊은 산중에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운문사 선배스님들이 가득했다. “어, 스님! 어떻게 여기 왔어요?” 반가움 반, 놀라움 반. 졸업한 선배 스님들은 어디서 공

부를 이어가고 계신지 늘 궁금했었는데 이 날에서야 비로소 그 의문이 해소되었다. 후배를 향한 한량없는 애정으로 도량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자원해주신 선배스님 덕에 사리탑부터 시작해서 대웅전, 그리고 수행 정진을 하고 계신 큰 방까지 돌아본 뒤에 끝이 어 운문사 25회 선배이신 도행스님과 차담 자리를 갖게 되었다.

추운 날씨라 그런지 따뜻한 공간에서 몸을 데우고 싶었는데 우리가 도량안내를 받고 오는 동안 커피를 내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 커피를 끓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 우리가 강원 다닐 때에는 학인들은 커피를 절대 못 마시게 했어요. 그래도 그 시절이 멋이 있었어요.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수업시간에 외워야 할 책 한 권 들고 도반이랑 근처 계곡에 가서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버너같은 걸로 불을 때서 커피를 끓여먹기도 했었어요.”

그야말로 요즘 학인들에게서는 흔적을 찾기 어려운 낭만의 시대였다.

“그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왔어요?”

● “스님, 현재 대원사 선방에서의 생활은 어떠신지요?”

“일단 일과를 말하자면, 요즘은 강원에서 4시에 기상하지요? 선방도 마찬가지로 요새에는 4시에 기상해요. 4시에 기상해서 6시 공양시간까지 바로 죽비치고 앉기 시작해서,

8시부터 10시, 점심공양 후 오후는 2시부터 4시, 그리고 저녁공양 후 6시부터 9시까지 앉아요. 계산해보면 하루에 총 8시간씩 정진하는데 옛날보다 기상시간이 늦춰지면서 앉아 있는 시간이 줄었어요. 스님들이 만약 강원 졸업하고 선방에 온다고 하면 여기서는 아무래도 가장 아랫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다각이 더 힘들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조력이 더 힘들어서 조력을 시켜요. 해제 직전 음력 11일이 되면 죽비를 놓고 각자 자기 옷, 좌복, 이불 등을 세탁하고 갈 준비를 해요. 음력 14일이나 15일에 해제하면 귀사하죠. 요즘은 편리한 세상이에요.”

선방에서의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듣고 있다보니, 운문사와 대원사 모두 기상 시간이나 취침시간, 그리고 입·방선시간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문득 강원과 선방 모두 대중생활을 하는 곳인데 오랫동안 선방에서 생활하신 선배스님께서서는 대중생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였다.



● “스님, 강원과 선방 모두 대중생활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힘든 점은 없으신지요?”

“대중생활은 굉장히 편합니다. 독살이는 예불부터 공양차리고 청소까지 다 해야 하지만 대중은 내가 해야 할 소임만 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도 나 혼자 하는 일 아니라 함께하는 일이라서 부담도 덜하고 좋아요. 그리고 대중에 있다 보면 눈치가 보여서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다 보니 옛날 어른들께서 대중이 공부를 받은 시켜준다고 하셨어요.”

대중생활에서 오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양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나의 불편함을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불편함이 내게 가장 큰 공부를 시켜준다는 것과 또 대중생활의 장점이 된다는 것, 이를 통해 만사에 좋음과 나쁨이라는 것이 본래 없으며 내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가자 요즘 선방에서는 화두를 드는 간화선보다는 초기 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주를 이룬다고 들은 바가 있어, 평소 간화선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어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보았다.

● “스님, 화두는 큰 의심이 들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의심은 그냥은 잘 안 생겨요. 큰스님 말씀들을 듣자마자 의심이 딱 바로 서면 그건 대

단한 선근善根이죠. 화두를 열심히 들다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끈기있게 밀고 나가야 해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열을 가하다가 힘들어서 멈추면 식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밀고 나가다보면 끓이지 않고 연결이 돼요. 어떤 날에는 화두가 한 번 만에 잘 들리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마魔예요. 기분이 좋다는 데로 생각이 가면 화두가 끓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수행자는 의심疑心, 신심信心, 분심憤心 이 3心を 잘 견지해야 합니다. 졸릴 때에도 분심이 있으면 조금은 도움이 돼요. 어거지라고 생각해도 자꾸 일으키다보면 이 3心이 잘 자리잡는다고 해요. 자꾸 공부를 지어가다보면 금생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해 마치지 않을까요.”

공부가 잘 돼서 기쁨을 느끼는 것도 일종의 마魔라니, 공부가 잘 됐으면 하고 바라던





나에게는 큰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이렇듯 화두를 드는 공부를 할 때에는 자칫하면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오인하기 쉬워보이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이 공부는 표가 잘 안 나니까 선지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요즘 세상에는 선지식 친견하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해요. 강원생활 하면서 4년 동안 많은 부처님 말씀을 배웠으니 산철에는 금강경이나 화엄경과 같은, 내가 주로 보는 경전을 보면서 결제 때 했던 내 공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의지할 선지식이 있다면 선지식께 점검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면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벌써 강원생활이 어느덧 꼭 찬 3년. 곧 4학년이 될 텐데 강원에 있다보면 졸업 후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내심 고민이 들 때가 있었다. 그래서 선방에서 한평생 열심히

히 정진하신 선배스님께 졸업 후에 선방을 가야 할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저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

“현재는 출가 연령이 너무 높고, 예전에는 졸업 후 선방 일로로 진로를 정했다면 요즘은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비전이 있으면 가도 괜찮지만, 만약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것이라면 출가한 목적에 위배되므로 반대예요. 출가한 목적에 걸맞게, 헛되이 살지 않도록 해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선방이 힘들 것 같아서 학교로 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뭘 할 수 있을지 생각을 잘 해봐야 해요. 선방 오는 것도 갈 데 없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을 버려서 부처님 길을 제대로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에요. 자경문에 나오듯, 금생 미명심(金生未明心)이면 적수야난소滴水也難消라. 시주의 은혜는 한 방울도 녹이기 힘들드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선배스님의 어조는 후배들을 위한 자애로 더없이 부드러우셨지만 우리가 출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가를 했는지를 잘 돌아보고 시은(施恩)을 잊지말라는 따끔한 경책이 가미되어 있었다.

● “초학자들이 선방에 처음 오기 전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면 좋을까요?”

“특별히 없지만, 강원에서는 가장 뒷반으로 어른대접을 받다가 선방으로 오면 제일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나를 내려놓고 오세요. 내가 선방을 갈 것 같으면 오로지 화두 하나만 들고, 아만我慢이든 자존심이든 나를 내려놓고 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원에서 경전을 보는 것은 하다못해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책 넘어가는 재미라도 있는데, 선방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각오를 잘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방에서는 말을 조금 줄여야 합니다. 말은 많으면 실수를 해요. 그렇다고 묵언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데, 묵언을 하다보면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필답이라도 하기 때문이에요.”

● “마지막으로 학인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계(戒)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

야 합니다. 어찌다 보니 계를 어기는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옷을 입었으니 기본 큰 계율은 절대로 망치면 안돼요. 나로 인해서 부처님을 욕되게 해서 안됩니다.”

평생을 선방에서 수행 정진하신 선배스님의 따스하고도 편안한 목소리를 듣다보니 언제 몸이 바깥 추위에 뽀뽀 얼었냐는 듯, 몸도 마음도 따스한 법의 온기로 가득 채워진 기분이 들었다. 생각보다 빠르게 시간이 흘러, 더 오랜 시간 대원사에 머무르고 싶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시금 선방에서 반드시 수행하리라는 발심을 하고 행자 시절 배웠던 초발심자경문에 나오는 글귀를 되새겨본다.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탐물百年食物은 일조진一朝塵이라.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년 동안 탐내어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의 티끌이라. ☸



보름달

해인 / 사집과(2학년)

손을 호호 불어가며
오백나한님께 공양 올리는 겨울밤

돌아오는 길에 몰래 올려다 본
불이문 위의 둥근달에
그리운 얼굴 비치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듯
달도 둘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달을 바라보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 따뜻한 눈빛에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네 ㉸



삼학 2학년 현소

모든 것은 꿈이나라

덕유 / 사교과(3학년)

“지환즉리부작방편知幻既離不作方便이며, 이환즉각역무점차離幻既覺亦無漸次라”

이 말은 환幻인 줄 알면 곧 떠나며, 환幻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이 구절을 듣고는 ‘무엇을 환幻이라고 하며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는가’ 라는 의심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느 환幻의 고리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지, 또한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원각경 수업에서 이 구절을 듣고 우선 우리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시간이 많다는 부분에 참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으로 운문사에서 불법을 배우는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았던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환幻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면 멀리 여의어야 할 텐데 지나간 시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늘 전긍긍 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을 본다고 마냥 좋아했지만, 경전을 보면 볼수록 문자로서만 경전을 이해하는 자신을 보았고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업시간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는 생각을 하지만 수업을 마치고 나면 무엇을 들었는지 날뛰는 원숭이처럼 왔다갔다하는 마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비로전 부전이 되어 매일 고성염불로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새 극복할 수 있다는 신심이 올라왔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보니 매일 제자리걸음 같았던 자신의 수행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각경의 보안보살장은 특히 번뇌와 고통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원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일상의 번뇌와 집착이 참된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므로, 자아에 대한 집착과 외부에 대한 욕망을 버릴 때 비로소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

게 되었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다 서로 다르듯 우리 모든 중생은 무엇이 달라도 분명 다른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찰나인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울고 웃으며 움직이는 각자의 몸짓이 모두 나름대로 자신의 열매를 성숙시켜 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다 사람을 평가하고 매도하고 다른 사람이 이러니 너도 이래야 한다는 것을 이 거울에는 바로, 그 일을 잠깐 멈추어 주면 어떨까요?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이며 무엇을 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 주는 일,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문사에 들어온 지도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치문 사집을 지나오면서 도반 스님들의 한마디가 힘이 되기도 하였고 때때로 본인의 삼독三毒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혼습되어버린 습기가 지배하는 날이 많아서, 괴롭고 힘든 나날들이 지속되거나 한심스러운 모습이 지속되어서, 매번 주력을 잡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업 중 이근耳根에 스쳐 지나간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이며, 무엇을 잡고 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몸은 사대로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없어 지는데 무엇을 집착하고 고민하는지,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을 합니다. 매번 넘어지고 또 일어나지만 매일매일이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번 생에 운문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의 소중함에 맹구우목盲龜遇木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4년 공부를 마치면 떠나지만 운문사의 처진 소나무와 은행나무가 스님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과 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강원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



십화 3학년 삼우



아름다운 구속

선혜 / 대교과(4학년)

주변을 밝히는 가지 끝 감홍시가 더없이 따뜻해 한층 내려앉은 배경 속 구름들마저도 포근하게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차례법문을 하게 된 화엄반 선혜입니다.

삭발 염의하고 난 후로 가장 많이 입에 올리기도 하고 가장 많이 듣기도 한 단어 중에 가피력이 있습니다.

절집에 있다 보면 누군가는 부처님의 말씀에 삶의 지혜를 얻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목숨을 건졌다고도 하며, 누군가는 대학입시나 취업에 성공했다 하는 부처님의 가피력에 감사하는 인사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제자들인 대중스님들께서는 각각 어떤 가피를 입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수행자의 삶을 선택한 저는 승가에 소속되어 대중생활을 하고 있음에 가피를 입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사색부화혜오분을彌沙塞部和醯五分律』에서 대중생활을 하며 명심하고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덕목인 '입중오법入衆五法'¹⁾에 대해 말합니다.

한때 우과리존자께서 부처님께 여쭙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가 승가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법으로 해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법으로 해야 하느니라. 하나는 뜻을 낮추는 것이고, 둘은 자비심을 내는 것이고, 셋은 공경하는 것이고, 넷은 차례대로 앉는 자리를 아는 것이고, 다섯은 다른 일을 논하지 않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않는 강원생활에 어려움은 참으로 많습니다. 한 발을 내딛기가 어려울 정도로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생활들 속에서 우울해지지 않고 바른 노력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분명 무상이고 무아라고 배웠음에도 육신이 허물어져가는 고통은 너무나 생생하고, 다른 이의 비판에는 진실한 참회의 말 대신 뼈죽뼈죽 변명이 튀어나옵니다. 타인이 내는 분별심은 거울같이 보아 인상을 찌푸리지만 스스로의 시비심은 너무도 정당하게 생각되고 마니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원각경』 「금강장 보살장」에서는

비여동목譬如動目이 능요담수能搖湛水하며
우여정안又如定眼이 유회전화由廻轉火하니
운사월운雲駛月運하고 주행안이舟行岸移하니
역부여시亦復如是하니라
마치 움직이는 눈이 능히 잔잔한 물을 요동시키는 것과 같으며
또 움직이지 아니하는 눈이 회전하는 불을 따라 도는 것과 같다.
구름이 지나감에 달이 움직이는 것과 배가 지나감에 언덕이 움직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

1) 송성수, 『미사색부화해오분율』 제19권, 동국역경원, 2013, 第三分之四 ‘자자법自恣法’

입중오법入衆五法 ①하의下意, 하심下心 ②자비심慈悲心 ③공경恭敬 ④지차제知次第 ⑤불설여사不說餘事

優波離問佛 若比丘入僧中 應以幾法 佛言 應以五法 一下意 二慈心 三恭敬 四知次第坐處 五不說餘事 復有五法 不應反抄衣 不應左右反抄衣 不應扞腰 不應覆頭 應恭敬僧

라고 비유하고 있어, 중생이 윤회하는 마음으로 내는 소견은 오직 또다시 윤회하는 소견을 낳을 뿐, 이러한 마음으로 여래의 대열반 경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 합니다.

이는 곧 아는 것이 행동을 앞설 뿐, 진리를 철견하지 못해 진실로는 한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도된 사유를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집 겨울철 명부전 부전소임을 살던 때,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불을 올리기 전 각각의 지옥문에 자리하신 시왕님들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또 무슨 악업을 지어서 어떤 지옥을 스스로에게 만들어 주었던가?”

‘심서다단心緒多端 중처편추重處偏墜라’, 마음은 많은 실타래의 끝과 같아 무거운 쪽으로 기운다고 「위산대원선사경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익혀서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진 나쁜 습관은 자주, 그리고 아주 빠르게 마음도량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24시간 중 23시간 59분 58초 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도 단 2초간 기울어진 마음의 거센 흐름으로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을 분노로 장엄한 지옥으로 만들었고, 때론 끝없이 허덕이는 아귀도가 되게 하였으며, 어느 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축생도로 만들기도 해서 겨우 2초였을 찰나에 주인자리를 내어주고 마는 일상에 실망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굳건한 정견正見을 세우지 못한 저 같은 초심수행자가 스스로의 뜻을 낮추어 자비심을 내며, 차서를 지켜 타인을 공경하고, 대중 가운데 세상일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인간이 습관대로 혹은 업대로 산다고 한다면 사실 정말 어려운 것은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것이고, 하심하는 것보다 하심을 계속 유지하는 일일 것입니다. 혹시 수행의 길목에서 저처럼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혼자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익히기 어려운 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24시간 채우기를 대중의 도움으로 익혀 채워 보심은 어떠실런지요?

몸과 마음이 편하기만 한 곳에 있었다면 도를 구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음어요, 스스로를 이만하면 충분하다 안주하거나 혹은 하지 못한다고 획을 긋고 말아버릴 일들도 대중 생활을 함으로써 드러나게 되니 그제야 비로소 자신을 바꿀 기회를 얻기도 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목탁소리 울림에 곧 나아가니 게으르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달고 쓴 것을 함께 받으니 간택함이 없는 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다른 누구를 이기는 것도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이겨 내어 인욕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지음어요. 가피가 아닐까요.

주어진 환경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자유로워 처처에 자재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구속에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인연임을 알게 되는 가피를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하루도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을 모든 지옥 중생들을 위해 저녁종송을 울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소리 듣게 되면 온갖 번뇌 끊어지고
밝은 지혜 자라나고 보리심이 생겨나며
지옥세계 멀리 떠나 삼계고를 벗어나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 건져지이다.

과지옥진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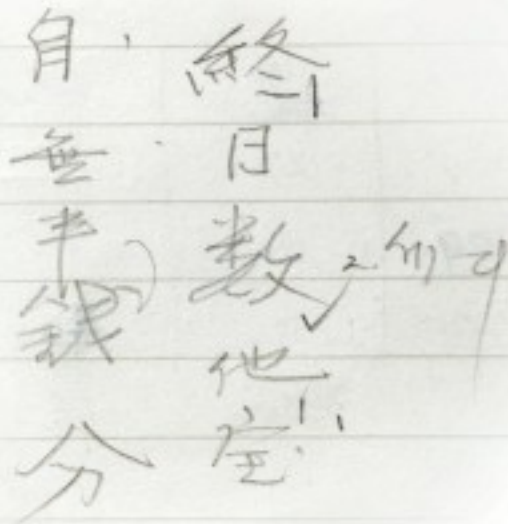
옴 가라지야 사바하

옴 가라지야 사바하

옴 가라지야 사바하 ॐ

수행으로 가는 발걸음

서현 / 사교과(3학년)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번뇌망상의 해일을 뚫어 버리기 위해 호흡관을 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수행에 힘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방심하면 자만심이 생겨서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외부 경계에 마음이 걸려 화가 나고, 그것에 천착하며 염념상속念念相續하다가 지치면 출가 전 월운 큰스님께서 써 주신 메모를 떠올립니다

종일수타보終日數他寶 종일토록 남의 보배만 세면서
 자무반전분自無半錢分 자신의 것은 반전 푼도 없구나.
 어법불수행於法不修行 법에 있어서 수행을 하지 아니하면
 다문역여시多聞亦如是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화엄경-보살문명품 中」

분별심을 일으키는 순간 알아차림. 다시 일어나면 또 알아차림...
 그렇게 반복하며 알아차림의 시간을 늘려봅니다.



親附善者 如霧露中行 雖不濕衣 時時有潤
 친부선자 여무로중행 수불습의 시시유윤
 「위산대원선사경책 中」

좋은 벗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안개와 이슬 속을 걸어가면
 비록 옷이 젖지는 않으나
 때마다 옷이 촉촉해지는 것과 같다.

도반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책을 보는 습관부터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개 속에 옷 젖듯이 한자가 눈에 익어지고
 책이 두렵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출가를 선택했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새벽 4시,
청량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도량석 목탁 소리에
'일어나자, 이 또한 수행이야' 하며 기상합니다.
생소한 환경은 어리둥절한데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하라"는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을 채찍질 삼아
새벽하늘의 별들을 보며 법당으로 향할 때에,
산사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 마실 때면
정신이 맑아지고 부처님께 예경하러 가는
발걸음 또한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힘든 것도 잊혀집니다.

운문사 오백전 100일 기도 회향을 앞두고
수업 후 잠깐의 시간을 내어
교수스님과 사교반은 108배를 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제대성중 제대성중……"

자신의 삼독심을 녹여봅니다. ☸





부처님께 가는 길

경운 / 대교과(4학년)

지난 가을 대교반은 원범 학감스님과 함께 14박 15일 인도, 네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10월 6일 새벽, 어른스님, 대중스님들, 그리고 새벽별의 배웅을 받으며 운문사를 떠났습니다. 비행기에 8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니 신통하게도 부처님 나라, 인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인도는 2,600년 전 한 왕자가 정각을 이룬 붓다가 되어, 평생 맨발로 분소의와 발우만을 지니고 못 생명을 교화하신 곳이니, 저희가 마땅히 가르침을 좇아서 가야 할 순례의 장소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문화유적지, 건축물, 예술, 할리우드 영화와 아라비안나이트의 나라이니 구도의 순례길이자 설렘 가득한 여행지로 기대가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룸비니에서 태어나 출가하시고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중도, 사성제, 팔정도의 첫 범륜을 굴리시고, 영축산에서 범화경을,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랑하신 바이살리는 유마경이 설해진 곳이며, 마하파자파티가 비구니계를 받아 첫 여성출가가 이루어진 대림정사가 성지로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위성의 망고나무에 천불 화현의 신통을 보이시어 외도들을 조복시키고 도리천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마야부



인과 천인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상카시아에 내려 오셨습니다. 45년 오로지 중생 교화를 향한 부처님의 발걸음은 쿠시나가르에서 멈춰 열반에 드셨습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숨결과 발자취가 남겨진 불교 8대 성지 중 상카시아를 제외한 일곱 군데와 여러 유적지를 다녀왔는데, 그중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이 마음에 깊게 남겨진 성지들에 대해서 간결하게 소개합니다.



여행 초기, 29개의 석굴로 구성된 아잔타 불교석굴에 방문했습니다. 긴 시간 고요히 휴과 나무, 덩쿨에 숨겨져 있었던 이곳은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동굴을 떠올리게 했는데, 영화보다 더한 보물과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900년이란 긴 시간을 걸쳐 조성된 이 석굴은 부처님의 생애, 본생담, 신과 보살들의 형상과 설화들이 석굴 입구, 기둥, 문, 벽, 천장 등에 아름답게 채색된 그림과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천 년 동안 잊혀진 채 신비롭게 숨겨져 있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절벽에 석굴을 파고 바위를 깎아 부처님과 부처님의 모든 법을 담아내며 담담히 구도의 길을 걸으신 스님들의 삶이 느껴져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인도 최초 불탑인 산치대탑은 동서남북으로 네 개의 탑문이 대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탑문에도 부처님의 생애의 중요한 이야기와 본생담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부조로 표현했는데, 그 작품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인도로 향하는 기차를 타러 보팔역에 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짊어지고 기차 플랫폼까지 옮겨주는 매우 전문적인 짐꾼 아저씨들을 만났습니다. 눈인사를 하던 한 아저씨의 깊은 눈빛 속에서 단단한 생활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순례 내내 인도 사람들의 많은 눈빛과 마주했습니다. 친절함과 호의가 가득한 눈빛을 더없이 선명하게 서로 주고받을 때도 있었지만, 부탁하고 조르

며 애걸하는 눈빛들은 쉽없이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며 자비심과 바른 보시에 대해 사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온 저희는 본격적인 성지순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찾아뵙는 성지마다 한 명씩 집전하며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예경하고 마지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생애, 수행, 가르침과 외도의 교화, 교단 생성 등 인연에 따른 경전을 독송하고, 108배, 좌선 등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기원정사 여래향실에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절을 하면서 '내게 무슨 복이 있어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가?' 를 숙고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은 복보다 더 많이 주어진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삶을 뒤쫓아 스스로 가야 할 길, 부처님께 이르는 길을 찾는 순례가 되기를 간절히 발원했습니다.

대림정사에서는 고탐미경을 독송하면서 그 먼 2,600년 전, 간절한 바람으로 비구니 출가의 길을 연 마하파자파티, 즉 고탐미 비구니 스님께, 또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거슬러 여성 해탈의 길을 허락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부처님의 불허不許를 허락으로 바꾸시게 하여 여성 출가에 도움을 주신 아난다 존자의 답에도 예경을 올렸습니다.

모든 도반들이 환희하고 요무수잡 逸無數匝 하고 독송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한 곳은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이었습니다.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 아래 기도하고 대탑 안 부처님께 예경드리고 일곱 선정처를 차례로 참례하고, 해가 진 밤 대탑의 곳곳에서 수행하는 각국의 스님들을 보면서 다시 발심하였습니다.

한 도반이 마하보디 대탑에서 느낀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나라 수행자들이 각자의 언어로써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단 하나의 거슬림과 방해가 없이 서로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이것이 성지의 힘이구나. 여기 부처님 성도의 공간에서 정진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깨달음의 인연을 내야겠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선지식과 깨달음의 연緣은 충분하니 다음, 또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이번 생애 깨달아야겠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동안은 경전에 나오는 기수급고독원, 죽림정사, 바이샬리,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가 상상 속에서만 있던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길을 걷고 그 삶을 사유하고 마음을 그 자리에 두니 부처님과 함께 머무르는 듯, 시·공간이 느껴지지 않는 생생한 충만함과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쿠시나가라 열반당을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번갈아 대열반경을 독송하였습니다. 한없이 악한 인간의 생사를 그대로 보



여 주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심에 내내 목이 메었고 부처님의 입멸에 깊은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열반당의 부처님께 가사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의 유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섬)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여래의 마지막 유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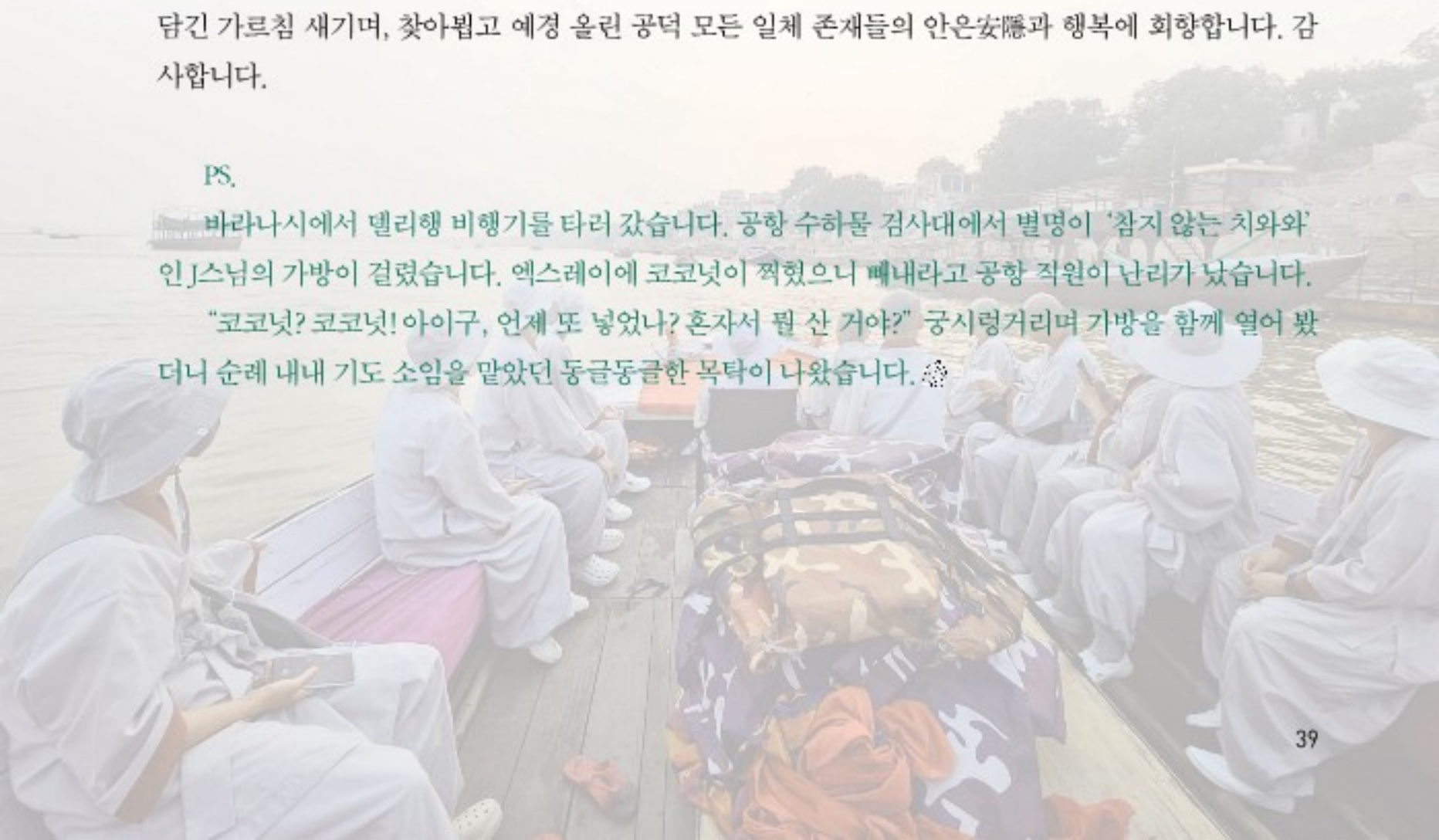
노을이 지는 저녁, 배를 타고 멀리 갠지스 강변의 화장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망자를 위한 극락왕생과 불연佛緣 가피를 빌었습니다. 또한 지금 살아 있음에 감사함과 애뜻함을 느끼고 필연으로 만날 죽음에 대한 사유를 했습니다. 찰나찰나 이어지는 모든 삶을, 이 평범한 일상을 진실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끝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자비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돌아오니 이 생에서 몇 가지 잘한 일 중 두 번째가 성지순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출가입니다. 불법에 대한 견고한 신심과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혜의 서원을 세우고 실현해 세상에 보살도의 삶을 회향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번 순례는 너무도 많은 도움과 응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귀중한 순례길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회주스님, 율주스님, 모든 어른스님, 대중스님들께 깊은 감사, 공손히 올립니다. 저희 손을 잡고 잘 이끌어 기도하는 순례길(!) 함께해주신 원범 학감스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귀한 발걸음마다 담긴 가르침 새기며, 찾아뵙고 예경 올린 공덕 모든 일체 존재들의 안은安隱과 행복에 회향합니다. 감사합니다.

PS.

바라나시에서 델리행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공항 수하물 검사대에서 별명이 '참지 않는 치와와'인 J스님의 가방이 걸렸습니다. 엑스레이에 코코넛이 찍혔으니 빼내라고 공항 직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코코넛? 코코넛! 아이구, 언제 또 넣었나? 혼자서 뭘 산 거야?" 궁시렁거리며 가방을 함께 열어 봤더니 순례 내내 기도 소임을 맡았던 동글동글한 목탁이 나왔습니다. ☺



회주스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희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세요!!



회주스님과 함께하는
참 좋은 시절



이번 김장도 맛있어지라~!!

연년시호년
年年是好年
(해마다 좋은 해)

일일시호일
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

편집부



대구 간송 미술관 보물 보러
승보 나들이~



해국 큰스님 법문을 들으며-집중! 깨어 있기!!



몸건강 마음건강



올력의 꽃은 맛있는 간식~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마저도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합니다
사집반 자비도량참법 기도



치문반 스님들도 부처님같이
성도재일 철야정진



청풍료를 꼭 채운, 주지스님의 오백전 회향 법문



출가자가 숙고해야 하는 법 10가지

혜념 / 사미니과(1학년)

심화_1학년 여행



출가자가 숙고해야 하는 법 10가지는 앙굿따라 니까야에 있는 경우경(A10:48)에 있는 경우경이며 팔리어로는 Dhamma-sutta라 합니다. 제가 출가자로 첫 삭발 순간에 읽은 경이며 저의 본사(붓다선원)에서 매주 수요일 새벽예불 때 스님들이 대중 앞에서 독송하는 경입니다. 짧은 경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승가에서 매우 뜻깊고 중요한 경이라 이렇게 글을 통해 나눕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속을 떠난 출가자가 거듭 숙고해야 할 열 가지 법이 있다. 무엇이 열인가?

1. 나는 몸과 필수품의 열악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
2. 나의 생계는 재가자에 의존한다.
3. 나의 행동은 출가전과 달라야 한다.
4. 나는 지계에 있어서 스스로 비난할 만한 점은 없는가?
5. 나는 지계에 있어서 청정범행을 닦는 지혜로운 동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점은 없는가?
6.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헤어지기 마련이다.
7. 업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이며,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고, 업이 나의 귀의처이다. 좋은 업을 짓건, 나쁜 업을 짓건, 나는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8. 나의 낮과 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9. 나는 한적한 곳에 홀로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가?
10. 나는 성인의 높은 법을 성취했는가? 죽음에 임박해서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 물으면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만한 수승한 지혜를 증득했는가?

비구들이여, 세속을 떠난 출가자는 열 가지 법을 거듭 숙고해야 한다.”

이 중에서, 제가 출가자로 생활하면서 제 경험에 비추어 나누고 싶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몸과 필수품의 열악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몸의 열악한 상태란 머리털과 수염이 없는 것, 필수품의 열악한 상태란 출가 후로는 떨어진 가사를 수하고, 철이나 흙으로 빚은 그릇에 섞은 밥을 먹어야 하고, 나무 아래 같은 곳을 거처로 삼고, 썩은 오줌 등으로 약을 만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 시대의 출가자의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 열악한 상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출가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열악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탐진치의 번뇌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상태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완벽하게 병들게 된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속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멈추는 출가를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소의를 입거나, 나무 아래 거처하거나, 썩은 오줌을 약으로 쓰는 열악한 상태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려 입었고, 모두 회색이지만, 계절별로 넉넉한 승복이 있고, 비나 눈, 해충의 괴로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청풍료 같은 훌륭한 주거 공간이 있고, 어지간한 몸의 불편함은 쉽게 달랠 수 있는 간당의 약품들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병원 출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열악한 상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마음을 뺏기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돈을 쓰는 일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갖지 않으며, 몸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말은 소임이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의 처해진 조건과 한계에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이다' 라고 했을 때 저의 사형님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수행이다' 라고 정책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하고 더딘 이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이 탐진치 급류를 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나의 생계는 재가자에 의존한다.

저의 본사 붓다선원은 수행자들의 자발적인 보시로 운영됩니다. 물질 보시가 어려우신 수행자들은 대신에 일정한 시간의 봉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붓다선원에 처음 일주일 수행을 계획으로 갔을 때 저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숙된 말로 '먹튀' 를 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엔 지내봐서 끝날 때 받은 만큼 내겠다는 뻔뻔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수행 후 다시 장기수행을 위해 붓다선원에 6주 계획으로 갔을 때까지도 저는 제가 그 일주일

수행에 대해 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될 정도로 보시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인과의 지혜가 조금씩 자라게 되었고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보시하는 것이 얼마만큼 저의 수행을 뒷받침해 주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행과 공덕은 새의 양날개와 같다는 자각이 생기면서 저는 조금이라도 공덕을 쌓기 위해서 작든 크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땅콩조림과 요거트가 스님들과 수행자들에게 올려질 때, 풀을 뽑고 꽃 한 포기 심을 때도 공덕이 쌓인다는 저의 믿음과 기쁨은 매우 컸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보시와 공양에 대한 저의 마음과 자세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 제가 지금 이 율회 속에서 최고의 공덕 쌓기인 출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재가자들로부터 여러 공양물을 받습니다. 크든 작든,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양물들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신심을 가지고 인과의 지혜를 일으키면서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한 분들의 정성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간절함 없이 그냥 올려지는 공양은 없습니다. 그러면 받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마하까사빠 존자는 가난한 집만을 골라 탁발하셨습니다. 잘사는 신도 집에서 충분히 좋은 공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양을 올리기는커녕 자신들 끼니조차도 때울 수 없는 그런 집만 찾아가셨습니다. 탁발을 받는 동안 선정에 드셨고 그 선정의 공덕을 회향하셨습니다. 며칠 후면 죽게 될 가난한 노파를 위해서 그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먹을거리인 쉰 쌀뜨물을 요청해 드셨고, 존자의 공덕 회향으로 노파는 선처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붓다께서는 수자타의 공양과 쥘다의 공양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에는 저열하거나 귀하거나 좋고 나쁨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공양물에 불평하거나 불만족하는 대신에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위험에서 벗어나기를...탐진치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감사하며 축원해 주는 것, 존재들에 대한 연민심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출가자인 우리에게 이런 회향의 힘이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일입니다. 출가자의 특권입니다. 회향에 인색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갈애, 생애에 대한 집착, 사건, 무지 등의 번뇌로 물든 모든 존재들에게
 오늘 하루 수행하고 계를 지키며 보시하고
 법문을 설하고 들은 저의 이 공덕을 공평히 나누어 드립니다.
 이 공덕이 탐진치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선정과 열반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

동양고전에서 불교를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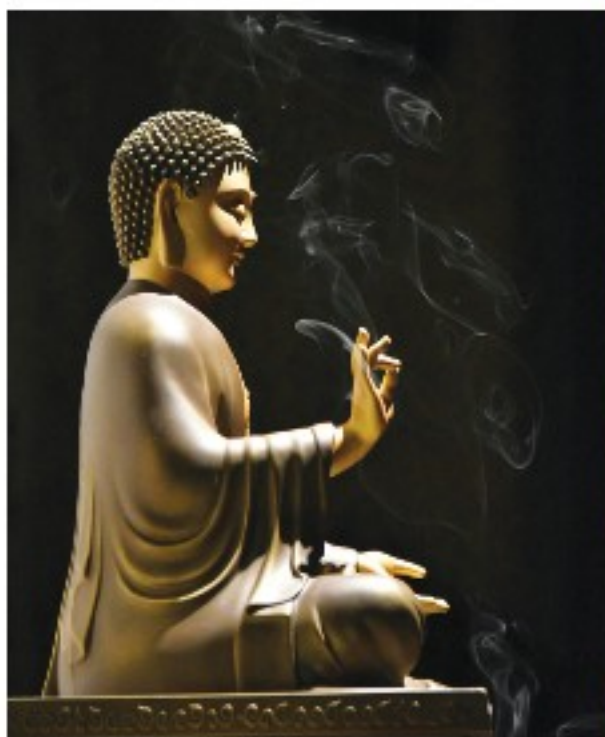
-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를 읽고 -

명주 / 사집과(2학년)

지금 21세기는 자본주의의 시대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용어이지만, 그것이 인간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힘 있는 사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또한 케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현시대를 지탱하는 이 체제는 협력보다 경쟁을 바라고 생산과 이윤의 극대화만을 위해 끝없이 착취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남들보다 잘나야 한다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추기지요. 부유해지기 위함이라는 명제 아래 스스로 고통받고, 동시에 남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끝없는 탐욕의 구덩이에서 서로의 살점을 파먹으면서요. 소개하는 책,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는 저자인 신영복 교수가 성공회 대학교에서 수업한 동양고전 강의를 편집한 것입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의 물질 낭비와 인간의 소외, 황폐화된 인간관계를 근본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한다고 설명하며, 당대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전 독법의 전 과정에서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시경, 서경, 초사, 주역, 논어, 맹자, 노자, 장자, 묵자, 순자, 한비자, 불교, 신유학, 대학, 중용, 양명학의 순서로 다양한 예시 문장을 관계론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의 사상들은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에 이르는 춘추전국시대, 즉 사회변혁기의 사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던 무





한정쟁의 시대이지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하며, 고전강독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와 그것이 관철하고자 하는 체제와 질서를 비판하고, 사회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담론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 이 책은 '관계론'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 근대사의 구성원리가 존재론이라면, 동양은 관계론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마처럼, 독립성이나 주체성보다도 모든 존재들이 서로 관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연과의 조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동양적 사고는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흥미롭게 읽었던 주역 파트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역은 오랜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구성된 지혜이고 진리이며, 그것을 기초로 미래를 판단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단정짓기보다, 경험의 누적으로부터 법칙을 이끌어내고, 이 법칙으로 다시 판단을 하는 관계론적 형식임에 더 주목하자고 말합니다.

주역의 관계론을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중 위도와 응을을 설명하는데, 그중 위, 즉 자리에 대해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효숫의 길흉화복을 판단할 때 그 효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처지에 따라 생각도 운명도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 자리는 몹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모름지기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

리가 사람보다 크면 사람이 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능력이 100 이라면 70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앉아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의 능력을 요구받는 자리에 앉는다면, 그 부족한 30은 결국 자기 힘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나 위선, 아침과 함량 미달의 불량품으로 채우게 되어 자기 자신도, 그 자리도 파탄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능력은 그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밟고 있는 처지와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만족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 설명하죠.

저는 이 구절에서 몹시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장 좋은 자리'를 원합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은 직장, 가장 좋은 배우자 등등...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보다 더 이상을 바라고 있지요. 그래야만 반드시 내게 이익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라는 환상에 젖어 세상에 계급을 나누고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탐욕이고, 집착이고, 어리석음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반성, 그리고 겸손이 없다면 어떤 '좋은 자리'를 원하든 스스로에게 맞는 곳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동양고전에 내포된 관계론은 불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엄경은 중중무진법계重重無盡法界를 강조하고 있죠. 현상세계, 즉 법계는 한 티끌 속에 세계 전체가 있고, 일순간 속에 영원永遠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지요. 하나 속에 전 우주가 있고, 일체가 개개의 사물 속에 포함되며, 서로 주종이 되어 무한히 개입하고 융합하며 작용을 주고 받는 일즉일체一即一切 일체즉일一

一切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서로를 인과 연으로 삼아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동아시아 문화에 촘촘하게 스며든 불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동양사상을 공부한다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역 파트에서 저자가 서산대사의 자찬계自讚偈로 마무리한 이유는 바로 이 문화적 동시성과 유사성 때문이 아닐까요.



동양고전의 관계론, 또는 화엄경의 중중무진법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영복 교수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불교인들이 세상을 보다 자비롭게 이해하고, 또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계율과 포살

진정으로 청정하게 계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을 '머리에 기름 단자를 이고 가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기름이 새어 떨어지는데, 그러면 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깨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듯, 계율을 어기고 지혜와 선정을 닦을 수는 없기에 만약 계율을 어겼다면 참회하여 다시 청정을 얻도록 해야 한다.

겨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계절이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점검해 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한다. 점검과 다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름지기 부처님의 제자라면 자신이 지닌 계율을 점검하고 청정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으뜸일 것이다. 특히, 초발심자들은 삼가며 계를 잘 지켜야 한다. 청정한 깨달음의 자리에서 본다면 본래 한 티끌도 물들이 없다지만, 불사문중(佛事門中)에서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계율을 지키는 삶이란 일체의 악하고 불건전한 죄악을 짓지 않는 청정한 삶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계의 원어인 실라(sila)는 '좋은 습관, 선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 계는 올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점차 몸에 좋은 습관이 붙어, 심신이 악행을 떠나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지향한다. 계는 도덕이나 윤리에 가까운 개념이므로 계를 어겼을 경우 물론 악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업이 남게 되지만, 당장 무슨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율의 원어인 위나야(vinaya)는 중국어로는 멸滅이라고도 하고 율律이라고도 하며, 신역(新譯)으로는 조복(調伏)이라고 한다. 계율이 온갖 잘못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멸이라고 했고, 세간의 범륜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을 판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율이라고 했으며,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을 조화롭게 하여 온갖 악행을 제어하여 행복받기 때문에 조복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정하게 계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초발심자는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도립선사께서 '세 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으나 여든 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라고 하셨듯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도 여전히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을 '머리에 기름 단지를 이고 가는 것' 에 비유하기도 한다.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기름이 새어 떨어지는데, 그러면 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깨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듯, 계율을 어기고 지혜와 선정을 닦을 수는 없기에 만약 계율을 어겼다면 참회하여 다시 청정을 얻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승가의 청정을 위해 '포살' 을 시행하도록 하셨다. 포살은 동일한 현전 승가에 속하는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라제목차가 낭송되는 것을 들으며 자신의 청정 여부를 확인하는 의식이다. 포살의 목적은 범계 사실을 승려 스스로 깨닫고 참회함으로써 청정을 회복하게 하는 데 있다. 계율을 암송하는 것은 입으로 문장을 외자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송계할 때, 암송을 마치고 나면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송하고 마음으로는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경계 인연을 만날 때 계를 범하지 않고 심악+편을 일으키지 않는다.

범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했음에도 그 과실을 인정하고 참회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출가자 개인뿐만 아니라 승가도 점차 자정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포살은 청정 승가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의식이다. 또한 불계를 받는 것은 얻기 어려운, 희유한 일이다. 그러므로 계를 받은 뒤에는 삼가며 지켜야 한다. 차라리 계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계를 범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자종금신지불신自從今身至佛身
 견지금계불훼범堅持禁戒不毀犯
 유원제불작증명唯願諸佛作證明
 영사신명종불퇴寧捨身命終不退

이 몸으로부터 불신에 이를 때까지
 굳게 금계를 가져서 범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모든 부처님께서 증명하옵소서.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마침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



▲ 동안거 결제 포살



▲ 오백전 백일기도 회향



▲ 소방훈련



▲ 대지원 법회



▲ 비로전 철야정진

- 11월 15일 동안거 결제 제사 및 겨울철 개학공사가 있었습니다.
- 11월 19일 - 22일 대구 간송미술관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 11월 26일 - 27일 김장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11월 30일 법공양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6일 동안거 결제 포살이 일진 읍주스님을 단주로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대학원, 화엄반 스님들의 졸업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 12월 8일 오백나한 백일기도 회향식이 오백전에서, 은광 주지스님의 회향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2일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이신 해국 큰스님의 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문수선원 스님들께서도 함께하였습니다.
- 12월 13일 겨울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5일 회주스님의 96세 생신에 동분회장단과 대중들의 인사가 약아게 다실에서 있었습니다. 회주스님께서는 대중 스님들에게 선물과 공양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 12월 19일 - 23일 동지 휴강이 있었습니다.
- 12월 27일 소방훈련이 있었습니다.
- 12월 29일 대지원 법회가 있었습니다. 총 14명의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 12월 29일 - 1월 3일 은광 주지스님, 원법 학감스님, 경한 종무국장스님께서 백천장학재단에서 후원하는 학인스님들의 대만 불교 연수 프로그램을 위한 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 12월 30일 청풍료에서 겨울철 중간 죽비 전달이 있었습니다.
- 12월 31일 비로전에서 철야정진과 종각에서 제야의 종 33타가 있었습니다.
- 1월 1일 새해 떡국마지와 향수해례 및 동알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1월 3일 - 5일 사집반 스님들의 자비도량참법 기도가 2박 3일간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1월 6일 부처님 성도제일을 맞아 철야정진이 청풍료와 금당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0일 제13회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 제61회 승가대학 졸업식이 청풍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 1월 17일 겨울철 종강일입니다.
- 1월 18일 - 19일 신입생 예비소집 및 면접이 있었습니다.
- 1월 20일 겨울철 마지막 자자 및 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월 21일 44일간의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구담사 지을스님 • 해명스님 • 지승도 교수님 • 강동해 • 권미숙 • 권현숙
- 김상달 • 김성옥 • 김현주 • 박재철 • 신현섭 • 이병석 • 이병준 • 이성용
- 장미경 • 정해옥 • 조서영 • 조정일(대인경) • 최오현 • 최희영 • 하옥희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운문지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다음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①주소 ②수령인 ③부수 ☎ 010-7403-7118
* 주소록 업데이트를 위해 기존 정기구독자 분들도 편집실로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전사물佛殿四物

운판雲板



운판을 울려 내는 소리는 각황의 소리이다.

구름 모양으로 만들어진 운판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중생을 제도하고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薦度하기 위하여 울립니다. ☺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 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 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천혜의 자연환경 속 역사문화관·수목원·다실을 갖추고
다양한 학인복지 제도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사미니, 비구니 스님 및 2025년도 봄 사미니 수계예정자까지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만 의 착용) 2매(3×4)

모집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 6일(음력 2월 7일)까지
(우편,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준비물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예비소집일 2025년 1월 1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3시까지
특전 >>> • 운문사 내 문수선원 해제철 실참 수행 가능
• 신입생 전원 태블릿 PC 무상 지원, 졸업여행비 지원
• 정기적인 초청 특강 (학인 스님들 요청 반영)
• 대만 불교 연수 프로그램 전액 지원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범계 명성·주지 은광·학장 영덕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2025년 봄 구족계수계 예정자 및 비구니 스님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 6일(음력 2월 7일)까지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준비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2025년 1월 19일(음력 12월 20일) 오후 2시
특전 >>> •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 지원
•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자격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 원장 명성·원감 일진

※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 운문사 홈페이지 www.unmunsa.or.kr

※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雲門寺僧伽大學

• 운문지 발행에 사용된 종이는 100% 친환경 재생지입니다.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겨울호·통권 제170호·2025년 1월 20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선재 / 편집위원·선재, 서현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선재 / 편집디자인·디자인마루 (053)426-3395